



문덕인쇄, 동양잉크 공급 HDGE UV CTP 도입 “수개월의 테스트서 만족할 만한 결과 얻어”

문덕인쇄(대표 박종하)는 최근 동양잉크(주) CTP사업부가 보급하는 화광수마(HDGE)의 128채널 UV CTP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CTP는 국 전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47장을 출력할 수 있는 고성능 UV CTP로 박종하 대표는 보다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문덕인쇄는 약 10년 전에 CTP를 도입했을 만큼 CTP에서 만큼은 초창기 업체라고 자부한다. 지금도 하이델베르크의 CTP를 2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의 HDGE UV-128CH CTP 도입을 통해 총 3대의 CTP를 가동하게 됐다.

수개월 테스트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 얻어

이번 화광수마의 CTP 도입과 관련해 박종하 문덕인쇄 대표는 “각 브랜드, 각 CTP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이다. 회사 입장에 알맞은 CTP를 선택해 그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동양잉크와 예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UV CTP라는 것이 중요했으며, 도입하기 전에 수개월 테스트를 거쳤는데, 만족할 만한 품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는 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태 동양잉크 CTP사업부 상무는 “HDGE의 CTP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오토로더가 특히 우수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좋다”고 밝혔다. 또한 “판재와 장비를 같이 수입,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AS에서 만큼은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다. 아울러 인쇄사에게 다른 공급 업체보다 서비스나 판재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본·독일산 부품 세계적 레이저 광학 시스템

HDGE UV-128CH CTP는 주요 부품을 일본과 독일산을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이 뛰어나며, 잔고장이 없어 사후 비용이 거의 필요치 않고 동양잉크가 AS를 완벽하게 지원한다.

세계 3대 LED 제조회사의 레이저를 독점 공급 받아 안정된 레이저 광학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판재 투입, 간지 제거, 파일 출력, 판재 배출까지 완전 자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토 로드 카세트와 CTP 본체가 결합된 독창적 설계 디자인과 멀티 레이저 파워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판재에 안정적인 이미지 출력을 지원한다. 오토 밸런싱 시스템은 다양한 판재 사용에 맞춰 신속한 판재 크기 변경이 가능하고, 1비트 TIFF 데이터 포맷 지원으로 폭 넓은 워크플로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을 제공한다. 2400 또는 2540 dpi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해 최고의 품질을 실현할 수 있다. 최대 출력 이미지 크기는 1160×930mm, 최소 출력 이미지 크기는 110×400mm이고, 출력 속도는 시간당 64채널 26장, 128채널 47장이다. ↻